



2025 소다미술관 기획전시 보도자료

《Question and Art: 걷는 인간, 질문하는 예술》

CONTENTS

《Question and Art: 걷는 인간, 질문하는 예술》展 전시 개요 ————— 3

전시 연계 도슨트 프로그램 〈Meet Me: 나를 만나는 산책〉 ————— 7

미술관 관람 안내 및 보도자료 사용 안내 ————— 8

2025 소다미술관 기획 전시

《Question and Art: 걷는 인간, 질문하는 예술》

조소희, 윤주희, 강수빈, 류예준, 이대길, 원애프터, (sound. 이대길 김수진)

- 미술관에서 야외 산책길로 이어지는 1km의 사유 여정
- 여섯 명의 작가가 제안하는 '삶을 위한 질문' 으로 구성된 전시
- 자연과 사람 사이에 잠시 머무는 명상의 공간, 파빌리온 설치

소다미술관(관장 장동선)은 5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2025년 봄 기획 전시 《Question and Art: 걷는 인간, 질문하는 예술》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며, 미술관 실내 공간에서 출발해 야외 산책길로 이어지는 약 1km의 전시 동선을 따라 관객이 '예술과 함께 걷는 여정'을 경험하도록 기획되었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는 니체의 말처럼, 미술관은 관객에게 시각 전시를 넘어 사유를 위한 일상의 예술 산책을 제안한다. 여섯 명의 작가들이 마련한 여섯 개의 시퀀스를 따라가며 걷고, 멈추고, 묻고, 느끼는 여정 속에서, 관객은 세상을 향해 열려 있던 감각을 내면으로 선회해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을 경험한다.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현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를 가시화하는 예술가들이다. 시간을 짜는 조소희, 의지를 세우는 윤주희, 인식을 흔드는 강수빈, 죽음을 감각하는 류예준, 공생의 공간을 만드는 이대길 등 이들은 작품을 통해 세상과 인간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인식과 통찰을 일깨운다. 산책길의 마지막 코스에서는 건축가 원애프터의 파빌리온을 만나게 된다. 파빌리온은 자연과 사람 사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명상의 시간을 제안한다.

소다미술관 장동선 관장은 “《Question and Art: 걷는 인간, 질문하는 예술》은 ‘예술’과 ‘걷기’가 만나 아름다운 사유의 여정을 그려내는 전시이며, 이 여정은 일상의 틈 사이로 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술이 던지는 질문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챙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는 7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 개요]

| 전시 제목: Question and Art: 걷는 인간, 질문하는 예술

| 전시 기간: 2025. 05. 15(목) – 2025. 7. 20(일)

| 전시 장소: 소다미술관 (실내 및 야외 전시장)

| 참여 작가: 조소희, 윤주희, 강수빈, 류예준, 이대길, 원애프터, (sound. 이대길 김수진)

[작품 소개]

조소희, 〈...where...〉, 2025

Q.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감각하나요?

조소희는 예술이라는 행위를 통해 ‘시간’을 은유하는 작업을 이어온다. 실내 공간에 설치된 거대한 원형의 그물 작품 〈...where...〉은 가는 실을 코바늘로 엮어내며 ‘시간을 짜는’ 과정을 시각화한 작업이다. 그물 사이사이 존재하는 공백은 알 수 없는 시간의 가능성과 우연의 공간으로, 관객은 이 안을 걸으며 조용히 흐르는 시간의 결을 감각하게 된다.

윤주희, 〈의지의 의지의 의지〉, 2019 - 2025

Q. 당신은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나요?

윤주희는 연약한 존재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 ‘의지’에 주목한다. 작가는 약한 무릎과 관절의 형태를 본뜬 홀드를 통해 실내 클라이밍 구조처럼 구성된 〈의지의 의지의 의지〉를 선보인다. 이 작품은 의지意志, 의지依支, 의지義肢의 의미가 중첩된 설치 작업으로, 작가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경험을 은유한다.

강수빈, 〈이미지의 기원〉, 2025

Q. 보(이)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나요?

강수빈은 거울로 구성된 설치작 〈이미지의 기원〉을 통해 보는 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작가는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위치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며, 현대 매체 환경에서 생기는 현실 인식의 오류를 지적한다. 관객은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이미지의 진실성을 몸으로 체감하게 된다.

류예준, 〈Big Mori〉, 2023

Q. 당신의 삶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언덕 위에 놓인 흐릿한 흰색 두상 〈Big Mori〉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의 문맥 속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성찰하는 작품이다. 가까이 다가가도 쉽게 닿을 수 없는 이 형상은 죽음의 실체를 조용히 환기시키며, 관객에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욱 선명히 바라보게 한다. 작가는 죽음을 감각하는 일이 결국 사랑을 기억하는 일임을 이야기한다.

이대길, 〈성소 연작 1-돌의 오아시스〉, 2025

Q. 나와 공생하고 있는 존재들은 누구인가요?

정원사이자 예술가인 이대길은 숲속 생명들을 위한 피난처를 만든다. 〈성소 연작 1-돌의 오아시스〉는 돌과 물로 구성된 생명들의 쉼터로, 곤충과 새들이 드나드는 공간이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이 작업은 전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생물 서식처로 남으며, 공존과 배려의 태도를 공간에 실현한다.

원애프터, 〈틈막: 자연과 사람 사이〉, 2025 (sound. 이대길, 김수진)

Q. 나는 내 안에서 편히 머무를 수 있나요?

건축가 원애프터는 ‘머무름’이라는 감각을 중심에 두고 공간을 설계한다. 《틈막: 자연과 사람 사이》는 땅과 지붕만으로 이루어진 원초적인 파빌리온으로, 벽 없이 열린 구조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끌어들인다. 이곳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틈’ 이자, 관객이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명상의 장소이다.

파빌리온 안에는 작곡가 김수진이 정원사 이대길의 운곡 습지 필드 레코딩을 바탕으로 만든 음악이 흐른다. 자연의 소리에 멜로디와 분위기를 덧입힌 이 음악은, 전시의 마지막에서 다시 일상으로 향하는 관객의 걸음에 잔잔한 여운을 더한다.

[프로그램 개요]

《Question and Art: 걷는 인간, 질문하는 예술》 도슨트 프로그램

〈Meet Me: 나를 만나는 산책〉

〈Meet Me: 나를 만나는 산책〉은 소다미술관의 도슨트와 사유의 여정을 함께하는 야외 산책형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술관을 출발해 야외로 이어지는 약 1km의 짧지 않은 동선으로 진행되며, 작품이 던지는 질문을 통해 관람객 스스로 나를 만날 수 있는 사유의 여정을 제안한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네이버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링크) https://bit.ly/QnA_MeetMe_booking

| 진행 시간

- 평일(1회) - 14:00
- 주말(2회) - 13:00, 15:00 (정시에 시작)

| 프로그램 진행 순서

route	theme	space
1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감각하나요? - 조소희	실내 전시장
2	당신은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나요? - 윤주희	실내 전시장
3	보(이)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나요? - 강수빈	야외 전시장
4	당신의 삶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 류예준	야외 전시장
5	나와 공생하고 있는 존재들은 누구인가요? - 이대길	야외 전시장
6	나는 내 안에서 편히 머무를 수 있나요? - 원애프터	야외 전시장

| 프로그램 예약 안내

- 예약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해당 주 차 프로그램에 한해 오픈
- 프로그램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프로그램은 폐강, 폐강 시 자유 관람으로 진행
- 6인 이상 단체 관람 시 시간대 조율 가능
- 우천 시 실내 공간에서 강의 형식으로 대체 진행

(예약 문의: 070-8915-9129)

미술관 관람 안내 및 보도자료 사용 안내

[관람 안내]

| 관람 시간: 수요일 - 일요일, 11:00 - 18:00 (입장 마감: 17:00)

| 휴관: 매주 월요일 · 화요일 휴관

| 위치: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707번길 30, 소다미술관

| 관람료 : 무료

| TEL: 070-8915-9127

| WEB: www.museumsoda.org

| MAIL: museum.soda@gmail.com

[보도자료 다운로드 안내]

- 보도자료 한글파일과 포스터 이미지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시 전경 사진은 5월 20일(화) 이후 동일한 링크를 통해 추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링크) : https://bit.ly/2025_SODA_QnA (크롬이나 internet explore 9 이상에서 사용)

* 보도자료 내 이미지의 경우 사용 시 작품 정보 및 저작권 정보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다미술관 제공)

* 보도자료와 관련해 상세한 정보 제공 요청 및 문의 사항이 있으면 소다미술관

(070-8915-9129)으로 문의주십시오.